

2018년 3월 7일, 남원읍 수망리 수망리복지회관, 문순덕(김은정·정이슬) 조사.

제보자1: 현달준(남, 1947년생, 남원읍 수망리)

제보자2: 현경삼(남, 1943년생, 남원읍 수망리)

- 줄거리: 물영아리는 신성한 장소여서 소에게 물을 먹이려 갈 때에도 떠들지 않았다. 떠들면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다.

[조사자] 수망리엔 유명한 사람이나 오름은 엊우가?

[제보자1] 오름은 물영아리인데 수영악, 물영아리는 속칭이주만 수영악. 우리 어린 때 올라가민. 축구장보다 넓어. 깨끗하고 뱀도 많고 개구리, 노루, 소도 올라강 물도 먹어낫주만은 지금은 지하수개발 따문 물이 일 미터도 안 돼.

[조사자] 물영아리 전설은 엊우가?

[제보자1]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들어보민 소 촛으레 가믄 떠들면은 안개 끼든가 비가 오든가 헷덴 해.

[조사자] 아. 소 촛으레 가믄 떠들면 안 됨다고.

[제보자2] 가물엉 농사 못 지을 때는 거기 강 기우제를 헷어.

[제보자1] 나무도 막 자라고.

[조사자] 소 물 주러 강 떠들믄 어떻 헤마씀?

[제보자1]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그런 전설이 잇주.

[제보자2] 가운데 물이.

[제보자1] 그때는 백록담만큼 넓었어.

- 핵심어: 물영아리, 수망리, 소, 농사, 기우제, 비, 안개